

우 자필라 스님은 한국 위빠사나 수행자들 사이에서 고승으로 통하는 인물. 현재 미얀마의 마하시 선원에서 수행지도도를 맡고 있는 스님은 순간적 정신집중인 '사마타'를 통한 찰나 삼매를 거치지 않고 지혜로 곧바로 들어간다

'북과 피아노' vs '외발수레와 두 바퀴 수레'

두 스님에게 공감 들었다. 사마타와 위빠사나의 관계가 어찌지, 비유를 들어 쉽게 설명해 달라고 했다.

먼저 자필라 스님은 "하나의 북만 계속 울아 칠 것인가, 주변 악기와 화음을 고려하며 음역이 다른 피아노 건반을 두드릴 것인가?"라고 되물었다. 사마타가 '북'이라면, 위빠사나는 '피아노'라는 것이다.

자필라 스님은 "사마타 수행은 한 가지 대상을 갖고 몰입해서 하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의 대상을 관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마타(삼매) 한 가지만 있으면 된다. 하지만 위빠사나는 육근으로 드러나는 모든 대상을 알아차리는 수행이다. 일어나는 대상 모두를 관하는 사마타와 정진력이 필요하다. 그래야 지혜가 일어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즉 북은 한 곳만 계속 치면 되지만, 피아노는 주변 악기의 음들과 순응해야만 화음을 낼 수 있다는

사마타-위빠사나 수행, 외국 고승에게 묻다

"한 가지 대상에만 집중해야 하는가, 모든 대상들을 순간순간 알아차려야 하는가?"

남방불교 초기수행법의 두 축을 이루는 사마타(정신집중·止)와 위빠사나(알아차림·觀). 최근 잇따라 방한한 미얀마 고승 우 자필라 스님과 파옥 아친나 스님에게 '사마타와 위빠사나의 관계는 어떤지, 대상을 관하는 마음은 들인지 하나인지, 간혹선 수행법과 무엇이 같고 다른지' 등에 대해 물었다. 우 자필라 스님은 10월 31일 한국위빠사나선원에서, 파옥 아친나 스님은 11월 1일 서울 흥원사에서 만났다.

“알아차림만 해도 지혜 얻고 열반” “사마타 거쳐야만 선정 들수 있어”

의미다. 반면, 아친나 스님은 "불안한 외발수레(위빠사나)를 끌지 말고, 안전한 두 바퀴 수레를 몰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위빠사나 수행의 전제조건으로서 사마타를 뒤야야 한다는 설명이다.

스님은 "사마타를 뒤는 이유는 선정을 얻기 위한 것이고, 이를 통해 지혜라는 빛을 볼 수 있다. 선정의 힘으로 빛이 나온다. 그 빛을 갖고 위빠사나 수행으로 가는 것"이라며 "사마타를 통해 초선(初禪)에 들었을 때, 위빠사나가 그 때 구성하는 선정의 요소 하나하나를 알아차리게 한다"고 말했다.

사마타 꼭 거쳐야 할까 마하시 사야도 계열의 위빠사나 수행자인 자필라 스님은 육근(六根, 눈·귀·코·혀·몸·의식)에서 순간순간 일어나는 대상을 칸니까 사마타(찰나삼매)로 알아차려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과정에서 사마타 수행을 거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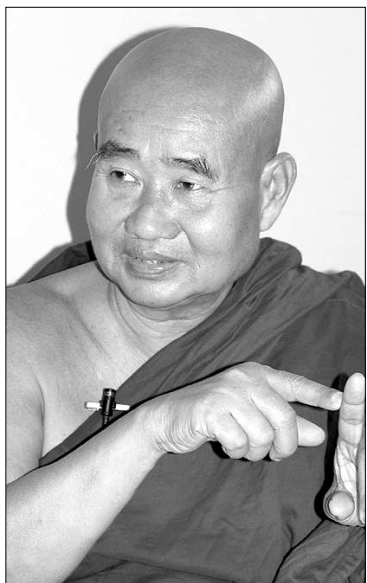
자필라 스님은 "순수 위빠사나 수행법으로써 법을 얻는 수행자에게 칸니까 사마타가 일어나야 한다. 어떤 하나의 대상에 고정해 긴 시간을 바라봐야 하는 사마타를 거치지 않고, 육근에서 일어나는 대

상들을 위빠사나로 알아차려야 한다"며 "위빠사나는 칸니까 사마타로 지혜를 얻게 하고, 결국 열반의 상태로 이끈다"고 강조했다. 파옥 사야도 계열의 아친나 스님은 다른 시가를 내놓았다. 사마타 수행을 얻기 위한 선정의 힘을 기르게 하기 때문에, 위빠사나 수행의 시작이 된다는 말이다.

아친나 스님은 "물질과 정신은 위빠사나의 대상이 된다. 실재하는 것을 보지 못한다면, 위빠사나라고 할 수 없다. 선정을 두고 난 뒤 실재하는 궁극적인 물질과 정신을 봤을 때, 비로소 진정한 위빠사나라 할 수 있다"며 사마타 수행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알아차리는 마음은 돌인가 하나인가 자필라 스님은 "하나"라고 말했다. 만약 탐심이 일어났다면, 바로 그 뒤에 있는 평정심이 탐심을 알아차리게 앞에 탐심이나 뒤에 평정심은 똑 같다는 설명이다. 앞에 탐심을 위빠사나로 관하기 때문이다. '이 마음이 다르고 저 마음은 다른 상태가 아니다'라는 의미다.

아친나 스님은 "하나일 수도 둘일 수도 있다"는 입장을 취했다. 어떤 대상이 일어났을 때, 그 대상을 아는 마음 역시 일



파옥 아친나 스님 남방불교의 사마타 수행 전통을 되살린 고승. 이번 한국 방문이 처음인 스님은 '사마타' 수행을 바탕으로 위빠사나 수행을 거쳐 열반에 이르러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다. 24년째 미얀마 '파옥 숲속 수행처'에서 정진 중이다.

어나고 사라진다는 것이다. 마음 상태에 따라 다르다는 셈이다.

아친나 스님은 "마음을 관찰할 때, 뒤에 마음이 앞에 마음을 관찰하느냐, 아니면 생멸하는 마음 이면에 다음 마음이 관찰하는 것이냐"의 문제라며 "만약 수행자에게 욕심이 일어났을 때, 그 마음을 알아차리게 하는 뒤에 마음이 오온(五蘊) 가운데, 수(受·받아들이는 마음작용)·일수도 식(識·의식)일 수도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사마타', 화두일념과 같은가 아친나 스님은 "다르다"라고 단언했다. 위빠사나 수행에서는 하나의 대상을 갖고 선정을 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간혹선이 화두 하나의 대상에만 매달린다 해서, 이것을 사마타라고 말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 아친나 스님은 "부처님은 '칭정도론'에서 사마타로 뒤는 대상을 몸의 32가지 구성부분과 뼈 등 40개로 정해줬다"며 "그 대상에 들지 않으면 사마타라 할 수 없다"고 말했다.

반면 자필라 스님은 구체적인 입장표명을 유보했다. 글·사진=김철우 기자

할로 죽이고 방으로 살리고

<42> 인절미 장수 여인

떡장수 노파와 더불어 인절미 파는 여인 네까지도 당당하게 납자와 겨루는 것은 근대 중국의 오경웅 박사 표현대로 '선학의 황금시대'에서는 일상화된 일이다.

화두선은 머리카락의 길이에 상관없이,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남녀노소 누구나 차별이 없었던 대중성을 갖춘 까닭에 기존 중원(中原)의 종교사상계를 일거에 평정하고 새로운 주류로 등장하면서 한 시대를 풍미했던 것이다.

떡과 인절미는 비슷하면서도 또 서로 조금 차이가 있다. 그러한 떡과 인절미의 차이만큼 두 노파의 고단한 삶의 궤적은 내용에서 차이가 있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노인네 모두 선종의 한 페이지를 당당하게 차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떡과 인절미만큼 비슷한 공통점을 가진다. 금릉 땅에 한 인절미 장수가 있었다. 신통현령이 넘쳐나지 못하여 시골장터

미를 던져버리니 시장바닥의 아이들이 앞을 다투어서 주워갔다. 이를 보던 그의 남편이 화를 내면서 말했다.

"당신 미쳤어?" 그러자 그 여인은 손뼉을 치면서 말했다. "이건 당신이 알 수 있는 경지가 아니요." 같이 살아도 서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많다. 그런 부분은 서로 견드려지 않는 것이 화평유지를 위한 불문율이기도 하다.

어쨌거나 지향점이 다른 부부사이의 또 다른 일면이기도 하다.

그 때부터 안목이 열려 스님네들이 시장 앞을 지나가기만 하면 불러 세워 한 마디씩 던지곤 했다. 하루는 어떤 납자가 지나가는데 노파가 갑자기 "아가야!" 하고는 불려 세웠다. 그런데

이 납자도 보통은 넘었던 모양이다. "어머니! 아버지는 어디에 있소?" 이렇게 대꾸를 하자 그 노파는 몸을 돌리더니 노주(露柱:노천에 있는 돌



거지가 부르는 노래 듣고 홀연히 깨친 여인 시장서 납자만 지나가면 불러 세워 신문답

에서 그것을 팔아 생계를 이어갔다.

그 여인네의 이름은 유도파(俞道婆·有道婆)였다. 이름이러기보다는 별호가 더 유명해지던 뒷날 그대로 이름이 되어버린 경우라고 하겠다. 글자 그대로 '도에 응답한 노파' 내지는 '도가 있는 여인네'였다. 유도파는 입제종 양기파의 양야계(瑯琊)선사를 친견한 적이 있다고 선법에 전해져 오며, 위산선사의 상당법문 속에서도 등장하고 있는 인물이다.

인절미를 팔면서도 발심하여 일구월심으로 부지런히 화두공부를 지어나갔다. 그러던 어느 날 저자거리에서 거지가 부르는 연화(蓮華樂)를 듣게 되었다.

유리가 편지를 전하지 않았는데(不因柳教傳書信) 무슨 일로 동정호에 왔는가(何緣得到洞庭湖)

이 노래를 듣고 홀연히 느낀 바가 있어 자기도 모르게 깔깔 웃으며 팔고있던 인절

기둥에다가 짚을 하였다. 그러자 그 납자는 기다렸다는 듯이 노파를 걸어서 넘어뜨리고는 말했다.

"난 또 뭐 대단한 것이 있는 줄 알았더니..."

누가 더 안목이 있는지 내연살림살이까지 알 수 없지만 견어자언 뒤 별다른 답변을 하지 못한 걸로 봐서 납자의 판정승으로 보인다. 하지만 그 이후 아래 사건에서는, 그 사이에 내공(?)을 쌓았는지 노파가 마지막에 결정타를 날리고 있다.

뒷날 어떤 납자가 그 앞을 지나가게 됐다. "스님은 어디서 왔소?"

"오조사(五祖寺)에서 왔습니다."

"오조사 노정님도 내 아들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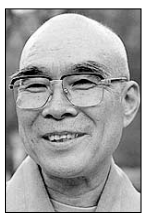
그러자 그 납자가 바로 되물었다. "할머니는 누구의 아이요?"

그러자 그 유도파는 대답했다. "이 노파가 스님네의 묻는 말에 선 채로 오줌을 싸셨소."

썩어아- 썩어아-
 ■ 원형 스님(조계종 포교원 신도국장)

아파트 코스: 나를 찾아 떠나는 9일간의 내면여행!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여기 있는가?
 밤은길 아파트 센터
 아파트 마스터 김해균
 전화주시는 본래는 안내 자료를 보내드립니다.
 지금이야말로 당신이 큰 변화를 가져오기 위해
 일생동안 기다려왔던 바로 그 시간입니다
 당신의 소원을 이루십시오
 ● 전화문의 상담 환영
 서울시 중구 명동동 154-1
 전화 010-6230-2113 ☎ 02)396-2736
 http://www.avataracenter.co.kr
 E-mail: heegyun@avata21.com

선원장 고우 스님이 본 위빠사나와 사마타 둘로 보지 말고 함께 해야



"선불교에서는 간화선을 성성적(惺惺寂寂), 회광반조는 적적성성(寂寂惺惺)이라 했습니다. 이것을 조기불교에 비교한다면, 간화선은 위빠사나, 회광반조는 사마타라고 할 수 있겠어요. 육조 혜능 스님의 제자인 영가 스님도 이렇게 보았습니다."

각하사 선택 고우 스님(사진)은 간화선의 입장에서 위빠사나와 사마타의 관계를 이렇게 설명했다. '현상이 있든 없든 모든 존재는 연기로서 존재한다'는 초기 불교의 '본래성불' 사상이 이 같은 비교를 가능하게 한다는 것이다.

"위빠사나는 혜(慧)고 사마타는 정(定)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의할 것은 '정'에 너무 놓여 보면 안 됩니다. 혜능 스님은 이렇게 보는 것을 <단정>에

서 의도라 했습니다. 간화선과 회광반조가 서로 다른 두 가지 수행법이라고 받아들이면 절대 안 되는 것처럼, 위빠사나와 사마타를 다른 것으로 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스님은, 간화선은 쌍조(雙照)로써 회광반조법은 쌍차(雙遮)로써 수행해야 하는 것과 같이 위빠사나와 사마타역시 너무 생각하지 말고 항상 함께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원불교대학 불교방송 다보빌딩 학사 이전 기념 장학 혜택
 대원불교대학이 2006학년도부터 마포 BBS불교방송 다보빌딩으로 학사를 이전하여 새로운 도약을 위한 제 2의 개교를 합니다. 이번 학사이전 기념으로 전 학생 20% 특별 장학 혜택(1학기)을 드립니다. 또한 2006학년도부터 새로이 불교심리상담학과를 개설 운영하오니 많은 분들의 동참바랍니다. (단, 장학혜액은 2006년 1월 31일 이전 원서 접수자에 한함)
 2006학년도 신입생 모집 안내(서울·부산)
 불교인문과정
 - 주, 야간 50명 (주 1회 출석, 6개월 과정)
 - 부부 입학 시 1인 50%, 학업우수자 50%, 불교성직자 30% 장학혜택
 대학과정
 - 불교학과: 주, 야간 각 100명(주 2회 출석, 주간 오후 2시, 야간 오후 7시)
 - 불교심리상담학과: 주, 야간 각 100명(주 2회 출석, 주간 오후 2시, 야간 오후 7시)
 (불교대학 졸업자 및 해당학력이 인정되는 자 응시 가능)
 - 불교학과: 야간 30명(주 2회 출석, 오후 7시)
 - 원서교부 및 접수: 2005년 12월 12일 ~ 2월 20일
 - 제출서류: 입학원서(본교 소정양식 1부), 학업계획서 및 졸업증명서 1부 (대학원과정만 해당)
 - 합격자 발표: 2006년 2월 21일(대원불교대학의 전 과정은 서류 전형으로 선발합니다)
 ※ 기타 자세한 문의는 교학과 서울 02)754-1613, 부산 051)583-7811~2로 해 주십시오.
 대원불교대학 · 대학원 www.idaewon.or.kr / www.buddhaschool.or.kr
 학사이전 기념 등문·재학생 초청 대법회 및 축하 리셉션
 ■ 일시: 2005년 11월 26일(토) 오후 5시
 ■ 장소: BBS불교방송 3층 다보원 큰법당
 ※ 주소가 바뀐 동문님들은 학교로 연락바랍니다.
 ▲ 부산대원불교대학 학사 전경